

‘왕일벌’ 전문경영인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몇해전 경제수석을 물러난 친구를 위해 동기들 몇이 모여 식사를 한적이 있다. 그때 그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의 경제관료인 친구불만이 생각난다.

"무얼 만들어내고 일하는 실천가보다 코멘트하고 비판하는 자가 너무 대우받는 한국이다." 건전한 비판도 실천만큼 중요하다는걸 모를리 없는 그다. 그러나 무얼 하고자하면 이러쿵저러쿵 얼토당토않은 비판과 시비에 유쾌하지 않았던 그의 말을 이해할만 했다.

벌에는 여왕벌은 있지만 왕일벌은 없는것 같다. 그러나 사람세상에는 일꾼중의 일꾼, 왕일꾼이 있다. 좋은 의미로 일에 중독된듯(Workaholic) 일을 즐거워하는 일벌레, 그들이 '왕일벌'이다.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한때 관료가 중추적 역할을 해냈고 요즘은 바로 기업의 경영자들이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들의 '실천적 역할'은 결코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번영을 이끌어낸 실천가들 역시 수많은 기업의 CEO와 경영진들이다. GE의 잭 웰치와 제프리 이멜트, AT&T의 마이클 암스트롱과 데이비드 도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 등 수많은 스타급CEO들과 불철주야 일에 몰두하는 경영자들이 미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또 그래야 한다.

'시장경제'는 정치적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먼저 한 사람의 유능하고 선량한 전문경영인이 열가지 좋은 제도보다 더 낫다"는 말에 공감한다. 그렇기에 창조적인 전문경영인들은 바로 한국의 소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과거 한국경제는 정경유착에 따른 재벌위주 압축성장의 폐단이 상당히 있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유능하고 선량한 전문경영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기업을 일구며 훌륭한 '선장의 역할'을 했던 그리고 현재 정열을 바쳐 일하는 소중한 '햇불형 전문경영인'들이 도처에 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뒤를 이어 올바르게 성장하려고 열성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려운 구석이 많아 보여도 미래는 밝다.

만약 가깝고도 먼 북한과 경제적 협력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중국의 동북3성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경제권 속에서 한국의 남과 북은 매우 핵심적 교량형 전략기지다. 북으로는 러시아로, 서쪽으로는 신실크로드로, 동으로는 아태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중심지역이니 말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이질적인 격차와 좁힐 수 없는 갈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만약 경합을 한다 해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문민정부시절의 단순논리만으로는 곤란하다. 또 북쪽이 절대기근이라 해서 계속하여 무작정 거저줄수도, 주어서도 안된다. '구슬을 꿰어서 보배'를 만들도록 그리고 '생선보다 낚시법'을 가르쳐주는게 현명하다. 북한 노동력은 아직 대부분 산업사회에 훈련되지 않은 노동력 수준이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도 딱 부러지게 내세울 것이 못된다. 다만 지난 개발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성장의 노하우가 있다고 할수 있다.

그 노하우를 지닌 중심에 성장과 번영의 기술자인 '햇불형 전문경영인'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이 바로 먼 미래에 '구슬을 꿰도록' 도울 것이며 '낚시법'을 가르쳐줄 실천가들이다. 이 점에서 올바른 전문경영인들은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햇불형 경영인을 발굴해내고 격려해 줌으로써 그들의 자생과 확산을 북돋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